

농촌마을 발전 격차의 원인에 대한 연구 : 신내생적 발전론의 적용*

김 태 연**

A Study on the Reasons of Development Gap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 The Application of Neo-Endogenous Development

Kim, Tae-Yeon

The paper is to compare two villages in Songak-myeon, Asan, Cnunngnam Province in Korea. It tries to show how the joint village project, which began with the support of the same external organization, produces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intern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the village. From the end of the 1990s, Pyeongchon-ri and Sugok-ri started developing villag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movement. And subsequent supports were provided by local organiz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village. However, the village project in Sugok-ri, which focused on economic performance, later turned out to be a failure, and the residents changed to pursue activities for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individually. On the other hand, In Pyeongchon-ri, the cooperation among villagers was strengthened in implementing support projects by similar external agencies. In addition, community ties and identity have been strengthened as problems have been solved through cooperation among resident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village project. Nevertheless, projects undertaken in Pyeongchon-ri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economic performance was all failed. Through these findings, the paper asserts that the neo-endogenous development approach utilizing external support on the basis of internal cooperative network among villagers must be a very useful method for rural development in contemporary societies.

Key words : *neo-endogenous development, exogenous and endogenous development, participati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tykim@dankook.ac.kr)

I. 서 론

세계적인 농촌개발 방식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농촌개발정책도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조성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농촌 지역사회개발의 관점에서 새롭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적 성과 중심의 다소 회귀적인 발전정책으로 선회하였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농촌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생산 및 경제적 성과 중심의 농촌개발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의 변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OECD에서 2015년에 발표한 ‘농촌정책 3.0’(OECD, 2015)은 농촌개발정책이 더 이상 경제적 성과 중심의 외생적 발전정책에서 벗어나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웰빙(welling-being)에 초점을 둔 내생적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OECD가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OECD, 2006)를 발표한 이후에 농촌정책 3.0을 발표하기까지 10여 년간 전세계적으로 7회에 걸친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논의하였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농촌정책의 변화가 개별 국가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농촌정책의 전환은 단순히 정책담당자의 번득이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논리의 개발과 이를 근거로 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세계적인 농촌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농촌지역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내생적 발전’(Lowe et al., 1995; Ray, 2001; Kim and Lowe, 2012) 개념이다. 최근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Ward et al., 2005; Kim, 2007; Shucksmith, 2010)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그 적용은 대부분 서구 사회의 농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EU의 농촌개발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들 유럽지역에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외생적 방식의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내생적 발전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모습을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유럽지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외생적인 관점의 지역개발방식이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낙후지역으로 구분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의 산업화 또는 농촌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통한 농촌 공업화 정책이 주류를 점하고 있었기

1) 소위 이론적재성(theory-ladeness)에 대한 설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Kim(2015)의 논문 참고.

때문에 내생적 관점에 근거한 새로운 방식의 농촌개발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 내생적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발전정책(Seong, 2004)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 개념을 농촌개발정책에 제대로 적용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이나 농촌개발 정책에 신내생적 발전을 도입하는 연구들(Kim, 2014; Lee and Nah, 2014; Kim, 2015; Park and Lee, 2016; Huh & Kim, 2017; Jo, 2018; Jung & Ha, 2019)이 나타나고 있다. Kim(2014)는 아산시 영농조합이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역 주체들의 관계가 전개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신내생적 발전의 추진 상태를 분석한 연구이다. Lee와 Nah(2014)의 연구는 신내생적 발전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적용하여 2기 신활력사업을 평가하는 연구로서 다양한 농촌발전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Kim(2015)는 우리나라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면서 신내생적 발전이 개념이 어느 정도 정책변화 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이다. Park과 Lee(2016)는 대구경북지역의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이다. Heo와 Kim(2017)은 양평지역에서 헬스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평가를 위해서 내생적 발전론과 신내생적 발전론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Jo(2018)은 농촌지역발전의 선진사례로 알려지고 있는 완주군의 약속프로젝트 추진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Jung과 Ha(2019)의 연구에서는 지역 내부와 외부 자원을 연계시키는 중재자 역할에 주목하면서 신내생적 발전론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신내생적 발전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농촌개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현상이 농촌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는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Kim(2016)의 주장에 근거하여 외부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된 마을발전(외생적 발전)을 지역주체들이 지역의 자원들을 중심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내생적 발전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신내생적 발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마을발전의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서 OECD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변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신내생적 발전론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두 마을(평촌1리와 수곡2리)을 사례로 해서 동일한 외부 단체의 지원과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작된 두 마을의 발전이 그 시행과정에서 공동체가 당면하게 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내부 주체들이 어떻게 새로운 활동을 전개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두 마을에 초래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외생적 발전 방식이 더 이상

농촌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조차도 지속적인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신내생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두 사례 마을에 대한 조사는 2005년과 2010년에 수행된 연구(Kim et al., 2005; 2010)와 2007년에 수행된 Kim 등(2008)의 연구에서 조사한 두 마을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다. Kim 등(2005; 2010)의 연구는 아산시의 마을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농정의 마을 단위 추진 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이다. 두 보고서에서 모두 수곡2리가 사례 마을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들이 진행되었다. Kim 등(2008)의 연구는 평촌1리 마을 주민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서 마을 조직의 변화 상황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를 통해서 과거 두 마을의 활동 상황은 정리할 수 있었으며, 두 마을의 최근 변화상황은 2017년에 수행된 마을 이장 면담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되었다. 그리고 두 마을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면사무소로부터 두 마을의 인구 및 세대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서 활용하였다.

II. 농촌정책의 개념적 변화

1. OECD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

1) OECD의 새농촌 패러다임

OECD는 1999년 농촌지역정책에 대한 연구팀(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Rural Areas)을 구성하여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OECD가 이러한 농촌정책연구팀을 발족한 이유는 우선, 1991년부터 시행된 OECD 농촌개발프로그램이 농촌어메니티, 농촌개발 파트너십, 농촌고용 및 서비스 창출, 농촌거버넌스 및 각종 농촌 관련 지표와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여를 해 왔으나,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새로운 현상이 농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의 추세를 반영하여 OECD 회원국들이 지역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국제적 교류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농촌정책연구팀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OECD, 2006).

이러한 농촌정책연구팀은 농촌정책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회에 걸친 농촌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농촌개발 정책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 성과가 2006년에 새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을 발표한 것이다(OECD, 2006).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3회에 걸친 농촌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각 컨퍼런스의 주제는 제1차(2002) 컨퍼런스는 ‘농촌정책의 미래’이고, 제2차(2004) 컨퍼런스는 ‘농촌정책의 추진방법’이고, 제3차(2005) 컨퍼런스에서는 ‘농촌정책

의 형성과 추진'이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세 차례를 컨퍼런스를 통해서 결정된 새 농촌 패러다임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1. The OECD's New Rural Paradigm

	Old approach	New approach
Objectives	Equalisation, farm income, farm competitiveness	Competitiveness of rural areas, valourisation of local assets, exploitation of unused resources
Key target sector	Agriculture	Various sectors of rural economies (e.g. rural tourism, manufacturing, ICT industry etc)
Main tools	Subsidies	Investments
Key actors	National governments, farmers	All levels of government (supra-national, national, regional, local), various local stakeholders (public, private, NGOs etc)

Source: OECD, 2006, p. 15.

이러한 2006년 새농촌 패러다임을 발표한 이후 OECD는 이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분야별로 총 6차례의 농촌개발 컨퍼런스를 개최²⁾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새농촌정책(New Rural Policy)'을 발표하였다.

2) 농촌정책 3.0 제안

OECD는 2015년 「New Rural Policy: Linking up for Growth」(OECD, 2015)를 발표하고 이것을 2016년 11월 농촌정책에 관한 회의에서 “농촌정책 3.0”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농촌정책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농촌 지역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정책 3.0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촌정책 3.0은 지역참여와 상향식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융복합적인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농촌커뮤니티의 경쟁우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농촌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농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의 웰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정책은 농촌커뮤니

2) 4차(2006): '농촌개발의 중점투자과제', 5차(2007): '농촌지역의 혁신'-인적자원 및 기술개발 방안, 6차(2008): '농촌정책 전달 체계'-농촌의 요구 파악 방안, 7차(2009): '농촌정책의 개혁방안'-세계 경제 변화 적응 방안, 8차(2012): '농촌경제의 혁신과 근대화', 9차(2013): '도농파트너십'-통합적 경제발전 방법, 10차(2015): '농촌정책과 국가발전'-농촌의 경쟁력과 웰빙 증대 방안 - 저자 주.

티의 경쟁우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또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농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융복합적인 투자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파트너십에 기반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농촌지역의 참여와 상향식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지역의 전반적인 능력(capacity)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Table 2. The OECD's New Rural Policy 3.0: from paradigm to policy

	New approach	New Policy
Objectives	Competitiveness of rural areas, valourisation of local assets, exploitation of unused resources	Integrating policy domains to address well-being dimensions
Key target sector	Various sectors of rural economies (e.g. rural tourism, manufacturing, ICT industry etc)	Low density economies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ariety and diversity of rural places)
Main tools	Investments	Complementarities with cities
Key actors	All levels of government (supra-national, national, regional, local), various local stakeholders (public, private, NGOs etc)	Toolkits/Policy Dialogue (Rural-Urban Partnership)

Source: OECD 2015, p. 3.

이러한 OECD 농촌정책 3.0의 제안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2006년에 새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을 제시하고, 2015년에 그 실행방안 성격을 띠고 있는 새농촌정책(New Rural Policy)을 ‘농촌정책 3.0’이라는 명칭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즉, 이는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면, 농촌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전 세계의 목표가 되고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을 농촌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렇게 10년 만에 개선된 정책안을 제시하게 된 것은 농촌정책을 단순히 독립적인 정책 분야로 간주하기보다는 다른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촌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농촌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 간의 세력관계를 어느 정도 변경하지 않고서는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에 대해 선진국 간의 동의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체계를 변경시키고

자 하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두 가지 모두 농촌지역이 새롭게 당면한 문제를 발견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OECD는 농촌정책 3.0을 통해서 새농촌 패러다임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정책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촌정책에 대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적 차별성 비교

OECD의 농촌정책 3.0을 농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농촌 연구자들과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인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신내생적 발전(Neo-Endogenous Development)’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이전에 사용하던 개념이 현재의 농촌 경제와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Lowe 등(1995)는 기존의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대적인 농촌개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Ray(2001)는 ‘신내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구 사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는지는 Kim과 Lowe(2012)의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생적 및 내생적 발전론의 현실 설명력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2차 대전 이후 농촌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외생적 발전정책은 현재의 서유럽 지역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의 여러 농촌지역들이 서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발전의 과정 자체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외부의 변화에 저항하거나 또는 새로운 힘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 간의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농촌 개발에 대한 일률적 방식을 적용하거나 국가 주도 및 하향식 접근법이 더 이상 현대 유럽 지역에 유용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현재의 다양한 농촌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던 내생적 발전도 그 이상주의적 성격과 모호한 정의로 인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Lowe 등(1995)는 외부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유럽 농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농촌지역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농촌개발의 전과정을 내생적 발전의

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제로 농촌개발의 과정에서는 각 지방의 고유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실제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발전론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분법적 개념의 한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Lowe 등(1995)이 제시한 관점은 지역 내부 주체들의 네트워크 관계를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지역 내 주체들의 역량과 활동의 성과를 네트워크 관계의 형성과 그 복잡성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측면의 특징을 수용하면서 Ray(2001: 4)는 신내생적 발전을 “내생적 발전에 기본을 두고 있는 발전으로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외부요소들(Extra-local factors)을 인식하고 이들이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발전이지만 여전히 발전의 전 과정은 지역의 잠재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말하자면, 지역 내부와 외부에 다양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 및 작동 과정은 그 동안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농촌지역에서는 그 발전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요소로 대두되는 것이다.³⁾ 이와 같이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내생적 발전의 특징을 기존의 외생적 발전 및 내생적 발전의 특징과 비교하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3. Features of exogenous, endogenous and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Exogenous RD	Endogenous RD	Neo-Endogenous RD
Key principle	- Economies of scale and concentration	- Economies of scope - The specific resources of an area (natural, human and cultural) hold the key to its sustainable development	- Network - Diverse drivers of development
Dynamic force	- Urban growth poles (the main forces of development conceived as emanating from outside rural areas)	- Local initiative and enterprise	- Interplay of local and extra-local resources
Function of rural areas	- Food and other primary production for the expanding urban economy	- Diverse service economies	- Diverse productive and service economies

3) 농촌지역에서 네트워크의 형성을 중심으로 농촌발전의 수준을 판단하는 연구로는 Terluin & Venema(2003)의 연구가 있으며, 이는 소위 RUREMPLO 프로젝트로서 EU 8개 농촌지역의 네트워크 현황을 조사 분석한 연구이다.

	Exogenous RD	Endogenous RD	Neo-Endogenous RD
Major rural development problems	- Low productivity and peripherality	- The limited capacity of areas and social groups to participate in economic and development activity	- Inequalities and asymmetries within network - Imbalance local and extra-local control - Weak networks (under circuits, power, knowledge and capital)
Focus of rural development	- Agricultural industrialisation and specialisation - Encouragement of labour and capital mobility	- Capacity-building (skills, institutions, local networks and infrastructure) - Overcoming social exclusion	- Decentralisation - Capacity-building of local actor to steer larger processes and actions - Valuing rural areas (and resources) within wider economic development (incubation and catalyst of growth)

Source: Kim & Lowe, 2012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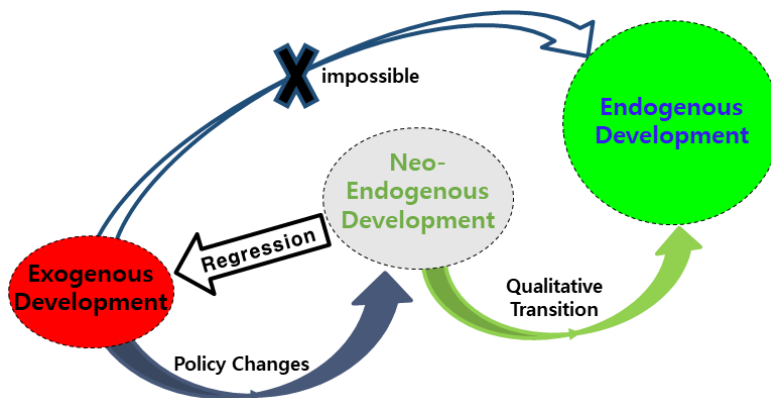
외생적/내생적 발전과는 달리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농촌개발이 지역 내부 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요인들과 연결된 다양한 요소 및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의 형성에 의해서 전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농촌발전의 목적 자체도 기존에 경제적 성과를 고려하던 것이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현상적인 달성 목표인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동력의 활성화라는 포괄적인 목표의 암묵적인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을 뿐이다. 즉, 비경제적 요소의 발전을 명시적 목표로 선정하면서 경제적 목표를 하위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 설정에서의 변화는 이후 활동의 동력이나 농촌의 기능과 역할, 농촌문제에 대한 관점, 발전의 주요 과제 설정에서도 기존의 경제적 측면의 요소들은 대부분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네트워크 관계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활용이 주요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외생적 발전론이 주로 근대화 및 신고전학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중시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성공적인 농촌발전 사례들이 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토대로 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경험적 발견(Lowe and Kim, 2003)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 및 다양한 지역 내외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 기초한 다양한 생산적 및 서비스 경제를 농촌지역에서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데 현재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로 네트워크 내의 불평등과 비대칭, 지역 내부와 외부 통제의 불균형, 그리고 지역 내 자원 순환, 지역 내부의 역량, 지식 및 자본 측면에서의 네트워크의 약화 현

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전은 권력의 분권화, 지역 내 활동가의 역량 강화, 경제 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의 가치 증대를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현상들이 지역 내부에서 발현될 때 신내생적 발전이 전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내생적 발전의 실행 측면에서의 특징

신내생적 발전은 기본적으로 외생적 발전이 경제적 성과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부 역량과 자원을 파괴하여 지역발전의 지속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생적 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내 다양한 경제활동의 발전을 통한, 지역 내 산업연관의 형성과 경제적 순환의 추구는 매우 이상적인 가치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시킬 방안에 대한 제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Kim and Lowe, 2012). 즉, 외생적 발전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내생적 발전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발전의 지향점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실행방식의 모호성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Lowe 등(1995)의 주장처럼 ‘발전은 단순히 지역 내 (in localities)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부존자원과 노동력의 결합을 통해서 (through localities) 이루어진다’ 것에 입각해서 지역 내부와 외부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신내생적 발전의 실행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source : Kim, 2016.

Fig. 1. The concept of NED Implementation.

신내생적 발전에서는 발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역과 외부 환경 간의 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세력과 힘에 대해서 지역 내부의 자원을 가치화하고 그 성과를 지역 내 보존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발전의 과정인 동시에 목적이며 외부의 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과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발전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세력과 힘, 예를 들면 정부의 정

책적 개입과 세계화에 따른 외부 기업들의 입지와 독단적인 경영전략 등등의 영향에 대응해서 지역 내 경제적 순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발전은 다시 외생적인 형태로 회귀될 수 있다는 것이다(Kim and Lowe, 2012). 즉, 발전의 시행과정에서 지역 내부요소와 지역 외부요소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발전과정에서 어떤 네트워크상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결국, 외부요소보다 내부 주체들의 영향이 더 크다면 ‘내생적 발전’으로 전화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고, 반대로 외부요소의 영향이 내부 네트워크의 역량보다 크다면 그 발전의 형태는 과도기적인 신내생적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다시 ‘외생적 발전’의 형태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Ⅲ. 마을 개요 및 초기 발전 과정

1. 마을 개요

충남 아산시 송악면은 전형적인 산촌지역이지만 평촌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평야지역의 비중이 높은 마을이다. 사례 대상 마을인 평촌리는 400년 이상 이어온 마을로 현재 45가구4)가 정착하여 살고 있고, 벼농사가 중심인 마을이다. 특히 농가 및 농경지의 약 70%가 친환경농업에 주로 전념하고 있으며, 인근에 있는 외암리 민속마을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천안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의 연결 도로망이 개통되면서 이 마을로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Fig. 2. Administrative divisions of Songak-Myeon.

있는 추세이다. 다만, 도시로의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농업활동을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곡리는 송악면의 북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서 수곡1리와 2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사대상 마을인 수곡2리는 2014년 현재 총 26호의 가구가 있으며 남자가 43명 여자

4) 평촌1리와 수곡1리 이장들과의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세대 수와 인구 수가 아산시 송악면 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세대들이나 주민들이 통계적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 33명으로 남자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마을이다.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20가구에 이를 정도로 가구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최근에는 새롭게 귀농하는 가구가 거의 없어서 마을 주민의 고령화 정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최연소 농민은 53세이며 50대 가구 수가 있는 가구가 5농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곡리는 산촌지역이지만 여전히 밭보다 논 면적이 더 많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대부분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콩, 호박, 노각, 토마토, 오이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마을 내에 축사가 1동 운영 중이다.

두 마을의 세대수와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평촌1리는 지속적으로 세대 수와 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곡2리는 세대 수와 주민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대와 인구의 변화가 일정 정도 두 마을의 변화 결과를 예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평촌1리의 상대적인 발전 정도가 수곡 2리의 발전 정도에 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두 마을을 발전과정을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4. Households and population trends of the villages

year	Household		Population	
	Pyeongchon	Sugok	Pyeongchon	Sugok
2008	55	28	151	88
2009	58	29	155	86
2010	55	33	161	85
2011	52	29	150	84
2012	55	28	145	77
2013	54	26	141	76
2014	59	30	149	81
2015	59	28	151	73
2016	59	25	161	71
2017	60	23	158	61
2018	67	23	166	56

Source : Office of Songak-Myeon.

2. 마을 공동사업의 시작

평촌1리와 수곡2리의 마을 발전은 모두 친환경농업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 창립된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에 두 마을의 일부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농업생산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부터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참여 농민들을 중심으로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을 형성하고 생산자 연합회의 발전 방향으로 친환경 지역농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두 마을에서 다양한 마을발전 사업들이 시작된 것이다(Kim et al., 2005: 2010; Kim et al., 2008).

평촌1리에서는 마을의 총 45 농가 중에 13농가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였으며, 한살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류행사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이외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농민 간 유대와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즉, 대부분의 농민들이 한살림에 가입한 생산자가 아니지만 외부 단체와 진행되는 마을 행사에는 비회원인 일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마을을 직접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2006년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한살림에 납품하는 콩나물 생산을 대행하는 ‘송악골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당시에 운영 중이었던 천안아산 한살림이 지역농업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운영하여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실시된 것이다. 즉,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설립 초기에 이 법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였던 콩나물 납품 사업에서 그 일부 물량을 평촌1리 마을단위 영농조합법인인 ‘송악골영농조합법인’으로 배분해 준 것이다.

이와 함께 한살림 소비자 회원과의 연대 행사로 자운영 식재를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마을단위 자운영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다. 자운영은 친환경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식재하였으나 자운영 꽃이 피는 봄철에 자운영 축제를 시행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각종 농업 및 농촌체험 활동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평촌1리의 이러한 마을단위 공동사업의 특징은 주로 한살림 회원을 중심으로 마을에 도입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살림과 비한살림 회원으로 구분되어서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던 사업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수곡2리의 마을 발전도 한살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운동에 동참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도에 당시 38호 농가 중에 12농가가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에 참여하면서 이 마을에 친환경농업 운동이 도입되었다. 초기에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수곡2리 농민들이 한살림과의 계약재배와 납품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초기의 동기는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은 수곡2리를 아산시 친환경농업의 중심 마을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아산시로 삼성그룹 공장의 대규모 이전계획이 추진되면서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농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아산시 한살림 생산 단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장기적으로 아산시의 친환경농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푸른들 영

농조합법인에서는 산촌지역인 수곡2리를 한살림 마을 공동체의 모델로 육성하고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자립적인 한살림 공동체를 만들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이다(Kim et al., 2005: 2010). 이는 수곡2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농가 수가 적고 청정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마을주민들 간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쉬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6년에 수곡2리를 중심으로 한살림 절임배추 공급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사업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험이 없었던 수곡2리 마을 주민들에게 외부에서 지원하는 공동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김장철에 한살림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절임배추를 수곡2리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을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낮은 소득에 있는 주민들에게 부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절임배추 사업이 2006년부터 수곡2리에서 시작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수곡2리는 기존에 외부 지원에 의해 건설된 마을 공동 시설이 빈약했던 곳인데, 여기에 절임배추를 위한 가공시설이 설치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시설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벼 추수 이후 특별한 마을의 경제활동이 없었는데, 절임배추 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농한기 일거리와 부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는 김장철 배추 생산을 위해서 배추 및 기타 양념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업활동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한살림이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살림 회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농촌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면서 한살림 회원으로의 가입을 고려하는 마을 농가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넷째는 기존에는 마을 주민들 간의 협력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절임배추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간 협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상 절임배추 사업을 통해서 마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마을 사업의 전개 과정

1. 평촌1리 마을사업의 확대 : 외부 지원사업 신청과 선정

1) 마을 공동사업의 1차 확대

한살림의 친환경농업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된 평촌1리의 마을사업은 2008년에 농진청에서 주관하는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한 단계 발전하였다. 신청과정에서부터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 간의 협력으로 시작된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에서 진

행하고자 했던 다른 공동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평촌1리는 총 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주로 체험관을 건립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다. 축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체험관을 활용해서 자운영 축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평상시에는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실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사업예산 지원 기관인 농진청의 존폐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통테마마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따라서 평촌1리의 사업도 지체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체되면서 건축자재 가격의 변동이 나타나서 당초 계획보다 3천만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로 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추가로 발생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장을 비롯한 사업추진 주민들이 마을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출자를 통해서 충당할 것을 제의하였고, 3차례에 걸친 마을회의 결과 참여를 원하는 가구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약 8%의 배당을 매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결국, 평촌1리 전체 45가구 중 33가구가 출자하여 3천만 원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이는 고령 가구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마을 전체가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외부 사업 지원의 지체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Kim et al., 2008).

체험관 건립 후 자운영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촌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약 7,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외부에 대한 홍보는 주로 겨레별꽃영농조합 대표가 자신의 벌꿀 체험행사에 참여했던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체험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각종 비용 및 일당을 지급하고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방문객에도 판매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체험활동 사업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매년 8%의 배당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 한살림 납품 분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접 인근 시장에서 팔아야 했던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체험활동을 통한 농산물 판매가 매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특히, 체험활동을 경험한 방문객들의 재방문 비율이 높아서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마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의 내부 문제로 인한 사업지원이 지체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을 주민들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극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결국, 외부의 영향에 따른 문제를 내부의 협력으로 극복한 경험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마을 주민 간 협력의 경험이 마을 주민들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상호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총 2억 원의 농촌진흥청 지원 자금으로 시작된 전통테마마을사업은 평촌1리를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체험관에는 식당, 사무실, 강의실 및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외부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을 주민들의 모임 장소 역

할을 하고 있다. 즉, 마을 주민들의 상호 교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체험관에는 한 번에 5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으며 이 인원을 넘을 경우 체험객을 받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체험기관들이 보다 많은 체험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증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는 좀 특이한 운영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험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한 참여자(안○○씨)의 의견에 따르면, 많은 수의 인원이 방문하게 되면 서로 간의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하게 적정한 인원 수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체험활동과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촌1리 체험관의 운영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테마마을사업은 원래 사업지원 기간이 2년이었지만 이후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의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체험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 인건비 전액을 농촌진흥청에서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 즉, 농촌진흥청의 자체 사업에 대한 후속적인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마을 공동사업의 2차 확대 : 마을 기업 운영(2010~11)

전통테마마을사업을 마을 주민들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마을 공동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가기 시작하였다. 이런 자존감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그리고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개척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마을기업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0년 장아찌 공장 개설을 계획하여 마을기업에 지원하였고, 총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여기에 체험관에 출자했던 주민들로부터 다시 2천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서 총 7천만 원으로 장아찌 가공 공장을 건설하였다.

장아찌 공장은 총 25평 규모의 작은 공장이며 주로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다. 체험관 방문객의 식사를 위한 반찬 제공 및 지역 내 가구에 반찬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초기 투자비가 적고 마을 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적게 소요되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아찌 사업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목적보다는 주민들이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작은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서 자존감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즉, 마을단위 가공사업들이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자존감 및 협동심 제고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또 가공 제품이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은 수익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마을 공동사업의 3차 확대 : 꾸러미 사업과 사회적 기업 운영(2012~13)

(1) 꾸러미 사업 실시

체험관과 장아찌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바탕으로 새롭게 2012년부터 꾸러미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마을단위에 '다라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산물 판매를 통한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즉, 체험관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 마을주민들 간의 협력이나 화합 또는 주민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향상에 목적을 두었던 것에 비해서 꾸러미 사업은 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인 목적이 중심이었던 사업이었다.

“무엇보다도, 평촌리를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체험센터를 통해서 방문객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꾸러미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생산하는 다른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회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안○○ 마을사업 종사자 면담)

우선 평촌리에 체험객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의 재방문 비율이 높은 것을 마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1차적으로 체험관 방문객을 꾸러미 회원으로 등록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마을 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판매활동에 연결되어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회원등록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회원들에게 2013년부터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함께 통나물, 두부, 유정란, 장아찌 등을 담은 꾸러미를 배송하는 것이었다.

(2) 사회적 기업 채소단지 사업 실시

꾸러미 사업과 함께 마을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채소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충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여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2013년에 실시하였다. 송악골 영농조합법인의 자회사로 시작하였으며 6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3개 단지를 조성하고 총 10명의 취약계층 인력을 고용하였다. 사회적 기업 인증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이며, 비닐하우스의 조성과정에서도 농식품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평촌리가 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은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거의 없어서 이를 마을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다.

4) 마을 공동사업의 조정기 : 꾸러미 사업과 사회적 기업 운영 중단(2014~15)

(1) 사회적 기업 채소단지 사업의 중단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던 평촌리의 마을사업은 2014년 들어서면서 몇 가지 실

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먼저,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한 채소단지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나 실제 직접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월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연간 약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일종의 기업으로서 종업원을 연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농업의 특성상 겨울철 채소재배가 적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간 7천만 원의 추가적인 인건비를 보충할 만한 경제활동이 어려워 사업성과가 적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된 종업원들이 자신의 급여를 기업이 아닌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성실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사무장이 실수로 사업지원 신청서에 서류를 누락하게 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운영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채소단지를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중단하고 채소단지 사업을 마을법인인 ‘다라미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인계하게 되었다. 현재 채소단지 사업은 정부지원 없이 마을에서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운영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기존 10명 고용했을 때의 성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꾸러미 사업의 중단

한편, 꾸러미 사업은 기본적으로 식품 관련 법규를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꾸러미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추기 위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콩나물, 두부, 장아찌 등 각종 가공식품도 포함하였는데, 실제 허가 없이 가공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꾸러미의 택배과정에서 특히, 가공식품이 변질되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색을 맞추어 택배로 배달하는 꾸러미 사업을 마을단위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꾸러미 사업은 중단한 상황이며 아산시단위 범위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2. 수곡2리 마을사업의 전개

1) 절임배추 사업의 중단

한살림에 공급하던 수곡2리의 절임배추 사업은 2007년부터 그 지속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먼저, 아산시 한살림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배추와 수곡2리에서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배추를 원료로 절임배추를 생산했지만 급격하게 한살림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곡2리의 절임배추로는 그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물량을 해남 등 전국적으로 구입하여 절임배추를 생산했는데

그 결과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여기에 수곡2리의 배추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의 악화는 절임배추 공급을 중간에서 책임지고 있었던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사업의 중단을 고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수곡2리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해결 의지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절임배추 사업은 사실상 수곡2리 마을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유지된 것이 아니라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서 마을의 상황을 배려하여 선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타율적으로 주어진 사업이다 보니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마을 주민들 간의 협력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은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노동력을 고용해서 사업을 수행했던 것이 사업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추진된 한살림 유기축산의 추진과정에서 수곡2리 마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축사를 경영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회원들 간의 업무 분담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여 축사의 공동운영이 실패하면서 이것이 배추절임사업의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수곡2리의 마을 사업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비경제적 측면에서 일정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인 참여 동기였던 소득 증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상호 협력을 근간으로 하지 않은 경제적 동기의 공동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는 외생적 발전을 신내생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과 신뢰(사회적 자본)를 토대로 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성취하지 못한 공동사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수곡2리 마을 상황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편입되는 것과 같은 외생적 방식으로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수곡2리가 농촌으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2) 기타 마을공동활동의 중단과 현황(2011년 이후)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마을 공동체 모델로 육성하려고 했던 수곡2리의 공동사업은 절임배추사업과 공동축사운영의 실패 이후 급격히 해체되었다. 이후 마을 내 한살림 회원과 비한살림 회원 간의 경제적인 측면의 교류도 거의 소멸했으며 한살림 회원 농가도 2001년

당시 12농가에서 현재 5농가로 감소된 상태이다. 이렇게 급격히 감소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살림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산규범이 농민들에게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 농가들에게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었다는 평가가 일부 있었고, 그 결과 한살림을 탈퇴하는 농가들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한살림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서로 달라서 농가 간 협력활동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마을 주민 간 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 마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도 마을 주민 간 품앗이나 도움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 사무소에 연락하여 외부 노동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판매도 한살림에 납품하는 계약물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의 5일장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개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V. 마을 사업 추진의 성과와 시사점

1. 평촌1리 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1) 마을공동사업의 성과

평촌1리 마을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마을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그리고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는 것이다. 초기 마을 공동기금의 형성과정에서부터 마을 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예방하고 모든 주민들이 마을 내에서 상호 존중되는 분위기를 형성한 것이 향후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을 갖게 되는 근본 토대가 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경제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일부 주민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용돈 벌이 차원의 작은 소득이 필요한 고령층이 스스로 자신의 노동으로 소득을 얻도록 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도록 한 것도 마을사업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험관과 장아찌 공장 사업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출자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이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 간의 협력적 경영이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마을 회의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마을공동사업의 시사점

평촌1리에서 추진되었던 몇 가지 실패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꾸러미 사업과 사회적 기업 채소단지의 중단은 공교롭게도 모두 주민들의 경제적인 소득 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했던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즉, 수익 증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무리한 운영을 시도했던 것이 실패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꾸러미 사업의 경우는 소비자들의 꾸러미에 대한 선호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양한 품목으로 구색 갖추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꾸러미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제품을 택배 운송하면서 법규의 위반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의 상품을 배송하게 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기업 채소단지의 경우도 채소단지의 특성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 없이 정부 지원금과 가능한 한 생산량을 높여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생각에서 무리한 투자와 고용이 발생된 것이 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평촌1리의 마을 사업 실패는 일반적으로 농촌마을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마을 주민들 간의 협력과 공동체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공동체적 협력과 신뢰가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에 기반을 형성할 경우 사업의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수곡2리 사업의 시사점

수곡2리에서 마을공동사업이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수곡2리는 지리적인 불리성, 인구의 고령화 및 젊은 농민의 부족, 낮은 소득 수준 등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농촌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곡2리에서 공동사업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절임배추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을 주민들이 절임배추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마을 주민들 간의 유대강화 또는 공동의 발전이 아니라 주민 각각이 부가적인 소득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아산시 각 마을별로 추진했던 공동축사 운영의 경우도 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의 시간과 여건을 배려해 주는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업무 분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곡2리의 공동사업이 실패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형성된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면 바로 중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형성된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도 쉽게 해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마을에 대한 주민들

의 자존감, 정체성을 토대로 이루어져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 사업도 단지 단기간의 경제적 성과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오히려 마을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해서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이 논문은 신내생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두 마을의 발전과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론적 맥락에서 신내생적 발전론의 특징은 발전의 시작과 전개 과정이 외부나 내부요소에 의해서 배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외부요소와 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내부주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요소와 내부요소의 결합은 단순히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차원에서의 결합이 아니라 내부주체들의 주도적인 역량에 의해서 다양한 외부의 조건과 지원들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외부 정책의 지원이 신내생적 발전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내부주체들의 주도와 외부 지원이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내부주체들이 각각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서로 화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신내생적 발전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한 두 마을의 발전과정은 지역 내부주체의 적절한 인식과 협력이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평촌1리와 수곡1리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두 마을의 세대수와 인구수의 변화추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마을발전을 추진했던 평촌1리에서는 많은 시련과 실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성과가 마을 세대수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수곡2리의 사례는 외부에서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부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 수준이 부족할 경우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 각자가 개별적인 경제적 이익의 획득에 집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을의 총체적인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성과 증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존의 마을발전 방식은 실제로 오히려 마을의 경제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민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상호연대가 이루어져야 경제적인 발전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마을에 대한 분석결과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한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외생적 발전을 시행한 국가에서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농촌지역 발전의 성공사례를 대부분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들은 대부분 특정 사업체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마을이나 일정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농촌 지역사회에 일정한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이 먼저 마을 내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협력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사업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어야 지역사회발전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평촌1리의 마을발전 사례는 신내생적 발전 방식이 현실적으로 마을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 내부의 조직을 우선적으로 형성하고 지역 내의 수요를 토대로 외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농촌개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ubmitted, February. 6, 2020 ; Revised, February. 17, 2020 ; Accepted, February. 17, 2020]

References

1. Huh, H. and H. T. Kim. 2017. A Study of Yangpyeong-gun Health Tourism about Neo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1(8): 153-170.
2. Jo, Y. J. 2018. Analysis of development process of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project : The case of Promising project of Wanju Province, Unpublished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University of Dankook.
3. Jung, G. and H. Ha. 2019.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Neo-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Central Government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of GeunHye Park Administratio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31(2): 377-409.
4. Kim, T. Y. 2007. The Embeddedness of Farmers Groups in rural areas: The case of an organic farmers group in Asan City.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5(2): 131-150.

5. Kim, T. Y.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Organic Farmers' Group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8(4): 441-461.
6. Kim, T. Y. 2014. The Turning towards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of the Farmers Network : The Case of the Regional Agricultural Cluster Scheme in Asan C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2): 902-913.
7. Kim, T. Y. 2015. Has the Paradigm of the Korean Rural Development Policy been Changing The Application of Neo-endogenous Development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93: 86~131.
8. Kim, T. Y. 2016. The Changes of Rural Development Paradigm. Lecture material for Co-operative experts. *Agricultural Cooperative University*. Nov. 28.
9. Kim, T. Y. and P. Lowe. 2012. Operationalising the Concept of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n Alternative Method Responding to Globalisation. *Space and Environment*. 22(1): 114-160.
10. Kim, T. Y., C. W. Lee, and D. P. Chang. 2008. A Study on the Regional Diversity of Rural Communities : a comparative study on two rural communitie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6(1): 91-113.
11. Kim, T. Y., H. Kim, and S. W. Heo. 2005. A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Support Policies through the Analysis of Village Cases :The cases of Sugok-ri and Gangjang-ri in Asan City. *Research Institute for Cooperative, Culture and Economy(RIC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University of Dankook.
12. Kim, T. Y., H. Kim, S. W. Heo, and S. M. Kim. 2010.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Effects of Agricultural Subsidies through the Analysis of Village Cases : The cases of Songak-myeon and Dunpo-myeon villages in Asan City. *Research Institute for Cooperative, Culture and Economy(RIC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University of Dankook.
13. Lee, K. W. and J. D. Nah. 2014. A Study o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Evaluation System from the Neo-Endogenous Development Theory, *Korean Regional Sociology*. 15(2): 95-126.
14. Lowe, P., J. Murdoch, and N. Ward. 1995. Networks in Rural Development: Beyond Exogenous and Endogenous Models. Ch. 5 in van der Ploeg, J. D & G. van Dijk. 1995. *Beyond Modernization: The Impact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Van Gorcum. Assen. The Netherlands.
15. OECD. 2006. *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OECD.
16. OECD. 2015. *New Rural Policy : Linking up for Growth*. OECD.
17. Office of Songak-Myeon, each year. *Statistics of population and households*.

18. Park, S. W. and H. J. Lee. 2016. A Study on the Establishing Endogenous Economic Foundation in Northern Region of Gyeongbuk Province. Daegu & Gyeongbuk Branch Office. Bank of Korea.
19. Ray, C. 2001. Culture Economies. Centre for Rural Economy.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20. Ray, C. 2006.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n the EU. Ch.19 in Cloke, P., T. Marsden & P. Mooney.(eds.) 2006. Handbook of Rural Studies. Sage Publications.
21. Seong, K. R. 2004. Vision and Strateg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ongdowon.
22. Shucksmith, M. 2010. Disintegrated Rural Development?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Planning and Place-Shaping in Diffused Power Contexts. *Sociologia Ruralis*. 50(1): 1-14.
23. Terluin, I. and G. Venema. 2003. Towards regional differentiation of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he EU.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LEI), The Hague.
24. Ward, N., J. Atterton, T. Y. Kim, P. Lowe, J. Phillipson, and N. Thompson. 2005. Universities, the Knowledge Economy and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Centre for Rural Economy Discussion Paper Series No. 1, University of Newcastle-upon-Tyne.